



# 일본선주협회장, 제 2 선적제도 도입추진

## 올해 도입목표 정부와 노조와 적극 협의

일본선주협회 쿠사카리 회장(NYK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제2선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도입목표로 노사정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쿠사카리 회장은 제2 선적제도의 실현전망 등에 대해서, "일본적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경쟁력 있는 선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인 선원의 배송요건은 과제의 일부로 전일본 선원조합과도 협의중이며 올 봄 또는 상반기중에는 동제도의 도입을 정식으로 상정할계획인데 승산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 비공식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 협의는 향후 제2 선적제도를 검토해 가는 하나의 협의 채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쿠사카리 회장은 제2선적제도 도입의 조기실현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이유중에서 향후 5년간 일본국적선사의 대량 건조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구에서의 제2선적제도 실현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능하다면 이마바리시에 이익이 되는 형태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본선원조합은 일본선주협회와의 제 2 선적제도 논의와 관련, 1월26일 열린 노사정 실무자급 비공식협의에 대해서 "일본인 외항선원의 실태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얻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자 연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합은 제 2 선적제도와 관련, 비공식 의견교환이 최근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기본적인 입장이 표명되었다. 일본인 외항선원의 실태에 대해서 공통 인식을 얻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려고 개최한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제선원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단체교섭협의회(IBF)를 둘러싼 필리핀 측의 의향이 확인되고 있다. 임금인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선원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 올해 석탄수요량 21억톤 전망

## 석탄수급 타이트, 발전 및 철강 영향

중국의 2005년 석탄 수요량이 21억톤으로 전망 되면서 수급 타이트에 따른 발전, 철강 등 산업전